국보 1호

서 경 태 | IAEA 핵물질보장조치 사찰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졸업
한국전력공사 근무(1984~1994)
IAEA 근무(1995~)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탔다. 일본인들이 교묘하게 숭례문이라는 이름 대신 남대문이라고 불려지도록 했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고, 방화범이 잡힌 이후에도 일본인이 방화를 했다는 어이없는 소문도 떠돌아다닌다(이 이야기는 실제로 필자의 아이가 다니는 비엔나의 학교에서 떠돈 소문이고, 심지어 CNN에서까지 보도되었다고 확대되었다.)

왜곡된 애국심이 여러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숭례문은 불에 타지 않는 돌로 만든 부분만 성한 채로 남았고, 나무로 만든 부분은 대부분이 불에 탔다. 아래층은 많은 부분이 멀쩡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국보 숭례문은 불에 타서 사라졌다.

대한민국이 난리다.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탄 숭례문 앞으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고 흰색 국화를 조화로 바치고 절을 하며 난리다. 제사상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사물놀이도 하고 굿도 한다. 참배객들이 늘어 나자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라고 따뜻한 차와 커피를 대접하는 자원 봉사자들도 생겨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기도 한다.

피해 조사와 복원 공사를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는 작업이 시작되자 국민의 알 권리와 볼 권리를 막는다며 또 다른 난리를 친다. 정부는 비싼 돈을 들여 속이 보이는 투명창으로 설치를 하겠다며 난리를 잠재우기 바쁘다. 심하게 말하면 세금을 들여 구경꾼들에게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신문, 방송들도 난리가 났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화재가 났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도를 시작했고, 다 탄 후에는 원인과 배경을 따지고, 책임 부서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독려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난리다.

더 이상 깎을 뼈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는 어떤 분의 비아냥을 무시한 채, 정부는 정부대로 다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책임자를 밝혀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고 난리다.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찍기가 바쁘다. 왜 불

탄 숭례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까? 불타 없어진 숭례문 잔해를 두고두고 보면서 우리의 국보를 기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타 없어진 숭례문을 바라보고 찍어야지, 왜 등에 두고 사진을 찍을까?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큰 의미 없는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대부분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일 년에 두세 번 정도만 메일을 주고받는 필자의 친구가 웬일인지 메일을 보내왔다. 필자의 친구는 시청 앞에 있는 해운 빌딩에 근무하고 있는데 숭례문에 불이 난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에 출근도 미룬 채 달려가 봤단다. 시커멓게 탄 숭례문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평소에 국가와 민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친구였기에 의외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보내온 메일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웬일일까? 얼마 전까지도 회사 일이 잘 안 된다고 걱정을 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올라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던 친구였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나라를 걱정하게 만들었을까?

말로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를 외치는 것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 많은 것들을 대한민국 내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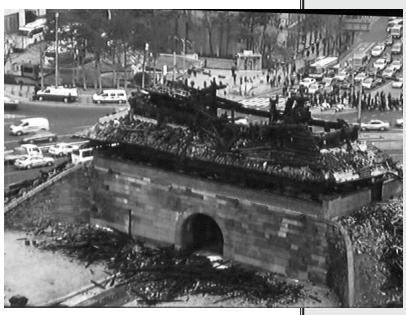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불 탄 숭례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슬퍼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조화를 바치게 하면서 우리의 국보를 기억하고 우리의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려 왔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무엇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마음을 찢어지도록 하여 눈물이 솟도록 만든 것인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순간적인 감정에 너무나 잘 치우친다. 신문 방송에서 슬픈 분위기를 만드니 같이 슬퍼진다. 다들 가본다니 꼭 가보아야 할 것 같다. 안 가보면 무엇인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도 조금 지나면 다 잊는다. 휴대폰에 찍어놨던 사진도 용량이 다 차면 지워 버리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사진들도 용량이 차면 지우거나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쳐박혀 있게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한 마디씩 하고 있지만, 조만간 잠잠해질 것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행태가 아닌가? 다른 국보가 또 다시 불에 타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필자 자신에게 여러 번 물어 보았다. 왜 삐딱하게 보느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필자의 시각이 너무나 편향적인 것은 아닌가?

예전에 외국에 나가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애국자가 된다고들 했다. 태극기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 오고 한글로 쓰인 간판이라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자주 나가다 보니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찍기가 바쁘다. 왜 불 탄 숭례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까?
불타 없어진 숭례문 잔해를 두고두고 보면서 우리의 국보를 기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타 없어진 숭례문을 바라보고 찍어야지, 왜 등에 두고 사진을 찍을까?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큰 의미 없는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외국에서 태극기를 보아도 시큰둥하고 한국 사람을 마주쳐 인사라도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 이상하게 보기가 일쑤란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 것에 대한 선망은 여전하고 말로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를 외치는 것 같다.

지난 주 출장을 같이 간 영국인 동료가 아침 식사 때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나타났다. 지난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잤다고 한다. 밤늦게까지 인터넷에서 뿌리 찾기를 했단다. 요사이 영국에서는 자신의 뿌리 찾기가 유행인데, 3대까지는 공짜이고 4대부터 그 이상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한다. 관공서, 법원이나 학교 등에 비치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거주증명서, 재학증명서, 세금계산서 등등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할머니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였고 자신이 어느 집안의 핏줄인지를 찾아본다고 한다.

맨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3, 4대 전 조상을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족보만 들추면 천 수백 년 전의 시조부터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다며 우리의 족보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동료의 눈에는 부러운 기색이 그득했다.

우리의 수많은 전통을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쓰레기 취급을 하여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전통이 사라져 버렸는가?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는 합리적이고 선진적이라는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것은 비천한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기는 아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국보가 사라져 가는 것을 왜 슬퍼하지 않는가?

서구인들이 시작한 그들의 뿌리 찾기가 한창인 지금, 우리는 족보를 유지하는 것도 고루하고 쓸모없는 전통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호적 제도도 불합리하다 하여 고치지 않았는가?

우리의 수많은 전통을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쓰레기 취급을 하여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전통이 사라져 버렸는가?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는 합리적이고 선진적이라는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것은 비천한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기는 아는가?

동양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그 문화를 따르려는 서구인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가는 이때에 우리 것을 버리고 서구의 저급한 문화를 의식없이 따라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우선시 되면서 학교와 선생님들은 권위를 잃어 버렸고, 아이들은 졸업식 날 교복을 찢어 버리고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에서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온갖 사진과 동영상이 난무하고 길거리에서는 더 이상 잘못을 나무라는 어른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각 가정에서는 나의 자식만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되고, 사회에서는 영어만 잘 하면 직업도 구하고 실력을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다. 도덕은 사라져 버렸고,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모호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불에 탄 숭례문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절을 시킨 부모는 아이가 불에 탄 숭례문을 보고 '오 마이 갓' 을 외친다면 정말 마음이 흐뭇할 것인가?

불에 탄 숭례문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정말로 아까운 우리의 국보이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국보가 불에 타는 것은 안타까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국보가 사라져 가는 것을 왜 슬퍼하지 않는가? 우리의 말과 글과 전통이 진정한 국보라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